



## 잡은 기침 감기와 비슷한 백일해

사라진 줄 알았던 백일해가 다시 발생해 '백일해 경계령' 내려졌다.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법정 제2군 전염병으로, 보르데탈라라는 백일해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. 누구나 감염될 수 있지만, 성인보다는 영·유아에게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. 우리 아이들을 백일해로부터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자.

## 심한 기침과 구토 동반한다면?

백일기침이라고 부르는 백일해는 주로 7살 미만의 어린이가 잘 걸리는 전염병이다. 잠복기는 6~20일이며, 감염된 후 평균 7~10일에 증상이 나타난다. 초기 증상은 감기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데, 기침, 재채기, 콧물로 시작한다. 그러나 백일해의 특징은 발작성, 경련성 기침이 계속되어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하며 기침 끝에 구토가 따르고 얼굴이 붓고 눈의 결막이 충혈되기도 한다. 구토 중에는 끈끈한 점액성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. 이 기침은 약 2~4주 또는 그 이상 지속되며 무호흡, 청색증, 비출혈, 경막하출혈 및 하안검 부종 등이 나타난다. 백일해는 감염 3~4주 동안 가장 위험하며, 심한 기침은 구역질이나, 구토,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. 기침이 심해진 후에는 기침을 진정시키기 어렵다. 아이들은 백일해와 같이 올 수 있는 폐렴, 중이염, 기관지염 등의 2차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. 치료기간은 2차 합병증을 포함해서 보통 2~4개월 걸린다.

백일해는 성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은 아니지만 영·유아에게는 치명적이다. 영·유아가 백일해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데 1세 미만 영아가 백일해에 감염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. 백일해에 의한 사망 원인은 주로 호흡기 합병증에 의한 것이다. 특히 폐렴은 백일해에 의한 사망 중 54%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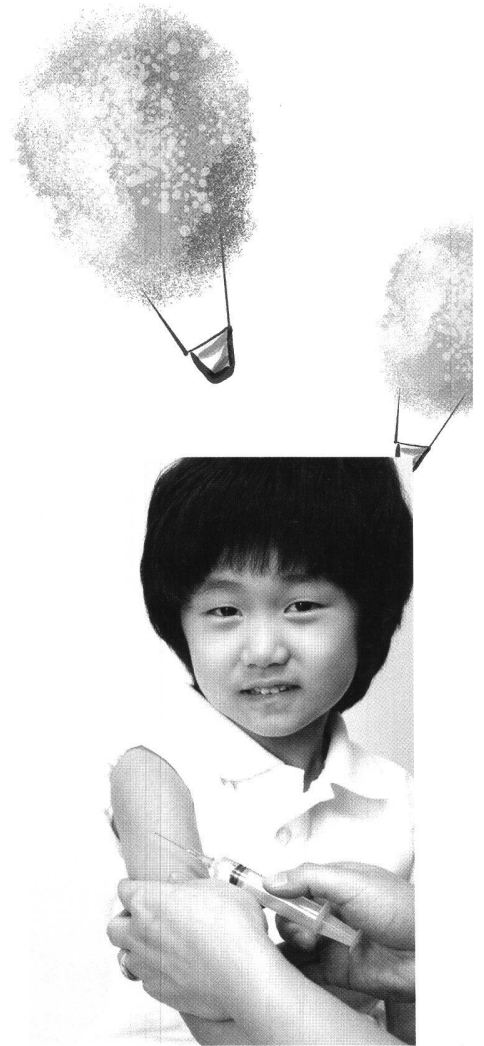
## 증상 나타났다면 입원치료나 격리치료를

백일해에 걸려 질환이 발병했다면 영유아의 경우는 주로 입원치료 및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. 백일해 치료는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을 잠복기나 발병 14일 이내에 투여하면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. 단 3개월 미만의 영아나 심폐 질환이나 신경질환이 있는 소아는 합병증에 의한 2차 질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.

## DTaP·Tdap 백신으로 예방하기

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DTaP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. DTaP란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의 세 종류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5회에 걸쳐 실시된다. 첫 번째 접종은 생후 2개월에 시작해 3회까지 두 달 간격으로 접종해야 한다. 추가접종은 18개월과 4~6세 사이에 한다.

백신접종을 했어도 면역성은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큰 아이들이나 성인도 백일해에 걸릴 수 있다. 백일해는 10세 이하의 아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나지만, 10세 이상의 어린이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. 10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Tdap 백신으로 백일해를 예방해야 한다. Tdap 백신은 11~64세를 위한 백신으로 DTaP 백신에 비해 디프테리아 단백질과 백일해 단백질이 더 적게 포함돼 있다. 소아에서 DTaP 백신을 접종한 뒤 성인이 되면 획득면역이 약화될 수 있어 성인에서 Tdap 백신 추가접종이 필요하다.



백일해는 성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은 아니지만 영·유아에게는 치명적이다. 영·유아가 백일해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데 1세 미만 영아가 백일해에 감염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.